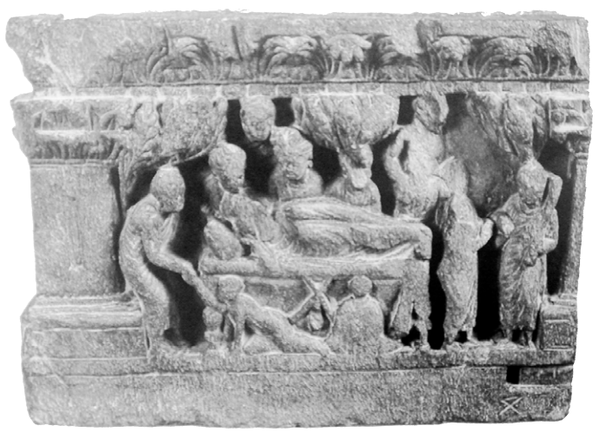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철학

해외불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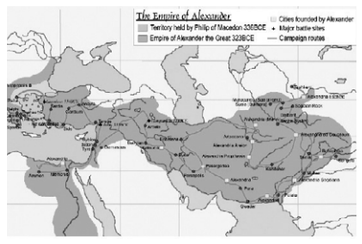
불교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만나 간다라 미술을 형성하며 융화됐다. 사진은 간다라 미술작인 '붓다의 열반'으로 3~4세기 작품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때보다 약 8세기 앞서 서쪽으로 간 헬레니즘 형 불교 또는 그리스 불교는 동서양의 이질문명과 원격문화가 조화 상승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고유성을 유지해간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전형이라 하겠다. 다신숭배의 헬레니즘문화와 견성성불의 불교철학이 곱고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르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원융(圓融)의 정수를 다시금 볼 수 있다.

12년간 연이은 정복전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을 마지막으로 서른셋의 나이에 급사, 점령지에 대한 통치체계를 확고히 정립할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측근 막료들은 제국 내의 정치적인 무질서와 세력견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각자의 주둔지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독립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측근 참모장이던 셀레쿠스는 인도의 서북부 외곽에서 내륙으로 서서히 남진하여 그리스-박트리아왕조를 창건한다. 이는 인종분포와 문화적 영향력에 따라 인도-그리스왕조, 그리고 쿠샨 왕조로 발전을 거듭한다. 그런 과정에 인도 내륙에서는 마우리아왕조가 몰락하고 숭가왕조가 정통성을 승계하며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한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두고 우리 불자들은 타 종교인들처럼 종교적 박해니 신앙적 시련이니 케케묵은 선동적이며 자극적인 수사를 쓰지 않으며 늘 담담한 차별성, 즉 중도를 놓치지 않는다.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남부지역의 신생 숭가왕조가 브라만 등 기득세력권을 선무 활용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통치권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북부지역의



알렉산더 제국 : 불교는 현 그리스에서 인도북부까지 10여개의 신도시 '알렉산드리아'들을 중심으로 서진전법되며 서양문명과 융합됐다.

외세를 배척하고자 시도한 정치 외교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불교 세력인 인도-그리스 왕조는 당연히 이를 식민통치 종주권에 대한 정면도발로 간주, 인도 내륙으로 남진하여 숭가 왕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접수해버린다.

우리 불교도반들은 이런 경우에도 '거룩하신 호법 구세주님께서 인도하사 부처님의 은총에 충만한 불자군의 성전(聖戰)' 따위의 촌스럽고 얼빠진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냥 약육강식의 보편성 또는 카르마에 따라 그리됐거니 여길 따름이다.

그리스 계인 국왕 데메트리우스1세는 기원전180년의 대 승전을 기념하여 코끼리 두상의 왕관을 머리에 쓴 은화까지 주조했는데, 그 기념 은화는 그리스어가 새겨진 드라크마 은화들과 함께 지금도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출토된다. 또한 조일로스, 스트라토, 헬리오클레스2세, 테오필로스 등 역대 그리스 계 군주들의 주화에 새겨진 '다르마의 왕'과 '불법의 수호자' 등 숭불호법의 표상은 당대를 누비던 그리스불교 왕조의 위상을 족히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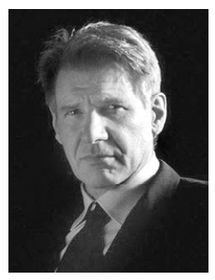
특히 팔리어로 밀린다라 불리는 메난데르 1세와 2세는 불교의 법륜과 그리스의 월계수를 합성하여 승리의 상징이자 왕국의 국장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한자로 제12존자 나가서나 또는 나선 비구로 알려진 나가세나와 밀린다 왕 사이에 오고간 문답형식의 법문은 <밀린다 파냐> 한자로는 <미란왕문경(彌蘭王問經)>이란 찬연한 불교고전으로 후세에 남겨진다. (계속) 편역=성휴 스님

출처 : Greco-Buddhism, Hindu Hellenic Civilization, Milinda Panha 등

"대자연 속에서 성찰의 시간을"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❸



해리슨 포드 처사님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시간관념이 정확한 동시에 가장 폐쇄적인 메가 스타로 알려져 있다.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고수하는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최악의 주범이 인터넷이라 말한다.

이는 다른 스타들이 자기 마케팅을 위해 사이버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활용하는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홍보에 나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에 있는 자택에서 지낸다. 잭슨 홀은 미국에서 가장 외딴 오지 가운데 하나며 거의 백두산을 연상시키는 방대한 산악지대로 사냥과 산악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러 찾는 곳이다.

틈만 나면 전기, 수도는 고사하고 화장실조차 없는 험준하고 적막한 히말라야의 토굴 암자에 들어앉아 고요히 안거를 하는 리처드 기어 법사님처럼 해리슨 포드 처사님 또한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겸허함을 배우는 은둔수행을 생활화한다.

그래서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과 달리 뉴스의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지도 않을뿐더러, 명성에 비해 취재 기사도 꽤 드물다. 모처럼 영화 관련 유명 웹진에 소개된 그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떼어 내봤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스타이자 다재다능한 해리슨 포드는 부질없는 시간 낭비와 잡다한 허세를 몹시 싫어한다. 그는 오늘처럼 손님이 찾아오면 직접 문을 열고 맞아준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 때도 늦은 점심 정도는 룸서비스를 받기보다는 키트캐트 초코비스킷 같은 걸로 때우고 만다.

또한 그는 요란하게 경호원이나 수행원을 몰고 다니지도 않으며, 그의 주변에는 홍보요원이나 보좌진도 어슬렁대지 않는다. 대개 혼자인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럼없이 손을 내밀어 힘찬 악수를 건넨다. 그의 첫인사 목소리는 좀 무뚝뚝한 듯 부드럽지만 너무 낮아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는 다큐멘터리를 해설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담담한 자기 확신과 오랜 참선수행에서 비롯된 강인한 내공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여기자가 물었다. "포드씨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원래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소중함을 점차 깨닫게 된 결과인가요?"

그의 대답이다. "제가 한 시간이 늦으면 저를 기다리는 상대방의 한 시간마저 터무니없이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닐까요? 남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듯 허투루 여겨선 안 됩니다."

다소 유명세를 탄 인기인 입네하고 촬영 현장이나 시상식 등에 일부러 늑장을 떨며 나타나는 꼴같잖은 얼굴에다 정권을 한방 먹이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다.

절 문 앞이라도 지나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해리슨 포드 처사님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삶의 기본, 즉 '염치와 배려'를 차분하게 설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카리스마란 요란한 차림새나 괴이한 언행 따위로 억지로 쥐어짜고 내깔기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중후한 품성과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차올라오는 것이다 성휴 스님

日 이토신조 스님 탄생 기념 전시회

일본불교의 국제전법 전략은 매우 다양하고 신축적이며 경제 지향적인바, 검도, 궁도, 유도 등 각종 무도수련과 차도, 분재 유료강좌는 물론 대형호화 패션쇼와 록 콘서트까지 망라한다. 특히 서화와 조형물 등 고부가가치의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미국 뉴욕시 밀크 갤러리는 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본의 이토신조 스님의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는 걸작 수백 점의 세계 순회전시회를 개최된다. 출처:IBC

美 플로리다에 태국 불교사원 건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유명 악어 서식지인 에버글레이드와 연중 번잡한 마이애미비치 사이의 과일재배단지 내에 고즈넉한 태국 불교사원이 들어선다. 홈스테드의 부지 약 5에이커에서 오는 2월 초 착공하는 이 창건불사는 향후 수년간 지속되며 건축 중에도 지역사회의 불교발전과 심신수양의 터로 개방된다. 출처: AP

17·8세기 주조 불경 희귀본 공개

17~18세기에 주조된 불경 희귀본이 1월 27일부터 타이완 고궁박물관에서 최초 공개 전시되고 있다. 전체 티베트문자로 새겨진 이 불경에는 금 250㎏이 소요되고 경함은 약 1만5000점의 보석으로 장엄된바, 동 박물관은 특수고화질 사진첩 전질을 미화로 각 약 3만7000 달러에 보급한다. 출처: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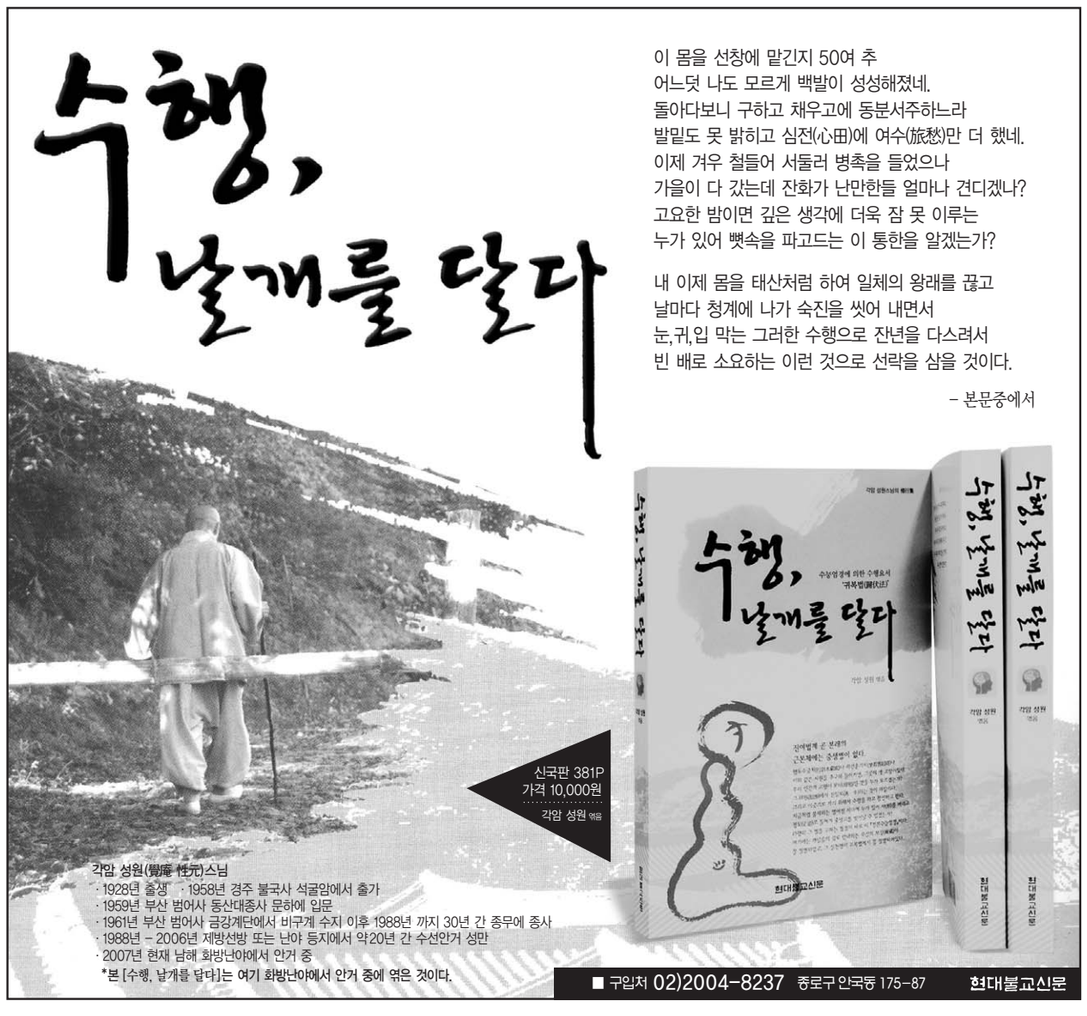
현대불교 구독신청 문의전화 (02)2004~8200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don't know who I am.
Please, show me my true self!"
-저는 누군가요? 제 진정한 자아를 일러 주십시오.

A distraught man approached the master. "Please, Master, I feel lost, desperate. I don't know who I am. Please, show me my true self!" But the master just looked away without responding. The man began to plead and beg, but still the master gave no reply. Finally giving up in his extreme anger, the man turned to leave. At that moment the master called out to him by name. "Yes!?" the man said as he spun back around. "There it is!" exclaimed the master.

절망과 비탄에 싸인 한 사내가 선사에게 매달렸다.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외롭고 참담한 저는 누군가요? 저의 진정한 자아가 뭔지 일러주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딴청만 했다. 사내는 통사정에 거의 구걸하듯 매달렸지만 스님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하다하다 지쳐버린 사내가 마침내 극도로 분노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스님이 그에게 소리쳤다. "이보시오!" "네 !?" 다시 휙 돌아선 그에게 스님이 대갈일성을 쏟았다. "바로 그것이 그대의 진정한 자아라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밝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촉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뼛속을 파고드는 이 통한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청계에 나가 숙진을 씻어 내면서
눈,귀,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락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 구입처 02)2004-8237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